

- 주요 뉴스: 연준의 테이퍼링 경로, 인플레이션 전망의 정확성 여부가 관건
 - 미국 대통령, 이번 주 기후변화 및 사회보장 지출 관련 민주당 내 합의를 기대
 -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이코노미스트, 고물가 현상의 확산을 예상
 - 독일 10월 Ifo 경기환경지수, 97.7로 6개월 만에 최저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양호한 기업실적과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전망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5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포함[0bp]
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박테크의 실적호조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
유로 Stoxx600 지수는 은행주와 원자재 관련주의 강세 등으로 0.1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등이 반영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3%, 0.2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보합. 수익률곡선의 스티프닝이 발생
독일도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시현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69.0원, -0.4원) 보합, 한국 CDS 보합

		10/25일	10/22일	전일대비			10/25일	10/2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66.5	4,544.9	0.47%	국채 금리 10y	미국	1.63%	1.63%	0bp
	유럽	472.21	471.88	0.07%		독일	-0.11%	-0.11%	0bp
	중국	3,609.9	3,582.6	0.76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28,600	28,805	-0.71%		중국	46bp	46bp	0bp
	한국	3,020.5	3,006.2	0.48%	위험 지표	EMBI+	-	374	-
환율	달러지수	93.83	93.64	0.20%		VIX	15.24	15.43	-1.23%
	유로화	1.1608	1.1643	-0.30%		WTI유	83.76	83.76	0.00%
	엔화	113.71	113.50	-0.18%	원자재	구리	452.7	449.8	0.64%
	위안화	6.3858	6.3850	-0.01%		금	1,807.7	1,792.7	0.84%
	원화	1,168.4	1,177.1	0.74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의 테이퍼링 경로, 인플레이션 전망의 정확성 여부가 관건

- 연준은 테이퍼링을 11월 시행하고 내년 중반 종료에 나설 것으로 예상. 이는 내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. 하지만 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 압력이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고,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
- 테이퍼링 경로는 예상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의 여파로 이미 당초 시장의 전망(내년 초 시행하여 1년간 지속)보다 빨라지고 있는 상황.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준의 통화긴축 역시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될 소지
-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통화긴축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.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제어하여, 기업과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대통령, 이번 주 기후변화 및 사회보장 지출 관련 민주당 내 합의를 기대

-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동안 의견이 달랐던 만친 상원의원과 주말에 회담을 가졌으며, 일부 문제가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마무리되었다고 언급. 지출 확대에 따른 비용은 모두 조달되고, 재정적자 규모도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고 강조
- 만친 의원도 지출 법안과 관련된 합의는 이번 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.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과도한 증세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

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이코노미스트, 고물가 현상의 확산을 예상

- 페르난도 마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물가 상황을 살펴보면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상승이 감소한 반면, 가격 상승이 발생하는 항목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. 이는 인플레이션이 모든 부문에서 일반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

■ 미국 9월 기업의 자본투자를 위한 대출, 전년동월비 6% 증가

- 장비리스금융협회(ELFA)는 같은 달 신규대출, 리스, 한도대출(credit line) 등의 규모가 92억달러라고 발표.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과 풍부한 유동성 여건 등으로 기업의 신규시설 및 장비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

■ 독일 등 9개국, EU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전력시장 개혁을 반대

- 독일, 덴마크, 아일랜드 등은 EU가 제시한 개혁안이 자국의 전력시장 상황과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시. 또한 개혁안이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

■ 영란은행 위원, 금리인상을 위해서는 좀 더 기다릴 필요

- 텐레이로 위원은 공급 차질 등은 일시적 현상이며,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언급. 금리인상 등의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임금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

■ 독일 10월 Ifo 경기환경지수, 97.7로 6개월 만에 최저

- 이번 결과는 전월(98.9) 및 예상치(97.9)를 모두 하회. 에너지 가격 상승, 공급 병목, 코로나 19 감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. Ifo의 클레멘스 푸에스트는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이 하방 압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
- 독일 중앙은행은 공급 차질과 서비스 수요 부진 등으로 4/4분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. 2021년 성장률은 3.7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. 한편 산업수주는 매우 양호하여, 수급의 불일치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

■ 골드만 삭스, 신흥국 주가는 실적호조 등으로 상승할 전망

- Caesar Maasry 애널리스트는 MSCI 신흥국 지수가 향후 12개월 동안 1475를 기록하여 현 수준에서 11% 상승할 것으로 예상. 또한 중국 부동산 불안 및 미국 통화긴축 우려에도 신흥국 기업실적의 점진적인 개선을 관측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25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: -0.13, 8월(0.05), 예상치(-)
- 미국 10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: 14.6, 9월(4.6), 예상치(6.8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2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FHFA 주택가격지수, S&P/케이스-실러 주택가격지수
- 미국 9월 신규주택판매, 미국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일부 신흥국의 과도한 경기부양책, 예상보다 역효과가 발생 - Financial Times

(The pandemic stimulus has backfired in emerging market)

-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다수 신흥국은 선진국과 유사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지만, 과도한 재정지출을 시행한 국가는 성과가 부진. 이들 국가들은 해당 정책으로 물가 및 금리 상승, 통화가치 약세가 상대적으로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
-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. 한편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높았던 헝가리, 브라질 등은 경제 여건보다 정치적 요인들이 관련 결정을 좌우

■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,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 - 블룸버그

(Now's the Perfect Time to Rethink 'Fiscal Sustainability')

- 경기부양 지출법안 합의의 난항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재정 적자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. 그러나 항만, 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출 증가는 공급 차질 해소에 도움이 되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억제할 가능성
- 아울러 공급 차질 해소를 통한 물가 안정과 이에 따른 수요 및 소득 증가 등은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소지. 이에 정책입안자들은 단순히 재정적자 증가를 우려하기보다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할 필요

■ 민간 자본시장의 급성장, 자산배분 오류·불법 행위 증가 등의 위험 동반 - Financial Times

(The dangerous private capital party)

■ 천연가스 가격 상승, 음식료 등 관련 산업에 연쇄효과를 유발 - WSJ

(Natural-Gas Sticker Shock Is Coming to Your Dinner Table and Commute)

■ 연준의 소극적인 인플레이션 대응, 심각한 통화정책 오류를 초래할 소지 - 블룸버그

(Mystical Hold of 'Transitory' Tempts Huge Fed Error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